

'3퇴'와 평안

제 368기 2019년 8월 1일

2019년 7월 30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3,816만 명

홍콩 반박해 행진, 원흉 사법처리와 중공 해체 촉구

[명혜망] 2019년 7월 21일, 홍콩 파룬궁 수련생들이 파룬궁 반박해 20주년을 맞아 성대한 집회와 행진을 펼쳤다. 이들은 국내외 각계를 향해 더욱 힘을 모아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저지하고, 박해 원흉 사법처리와 중공 해체를 앞당겨 20년에 걸친 잔인한 박해를 끝내길 호소했다. 홍콩, 중국, 외국의 여러 정계요인과 유명인사는 집회 발언을 통해 파룬궁 수련생의 '진(眞), 선(善), 인(忍)' 보편적 가치 견지와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반박해에 대해 찬사와 지지를 보냈다.

연단에 오른 홍콩 파룬불학회 대변인 젠훙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바른 기운이 상승함에 따라 중공 사당이 전 국민의 혐오 대상이 되고, 전 세계에 포위를 당하는 유례가 없는 위기에 빠져있어 곧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와 각계 민중에게 선을 선택해 따르며,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 저지에 더욱 힘을 모아 박해 원흉 사법처리를 앞당기고, 중공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며, 박해를 종식시켜 중국과 전 세계를 광명으로 나아가게 하자고 호소했다.

멀리서 온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파룬궁 탄압과 장기적 출입금지 학살이라는 중공의 놀라운 범죄행위를 질책했



다. 그는 이것은 잔인무도한 박해라며, 오랫동안 지속되고 하늘과 땅을 뒤덮는 박해 속에서 파룬궁 신앙의 역량이 증명되었고, 예상했던 결과와 정반대로 파룬궁 수련생을 더욱 견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버스에서 큰소리로 중공을 '공비(共匪)'라고 정의하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 민중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악랄한 본성을 깨닫고 '3퇴(해외 탈당 사이트에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경찰이 버스에서 큰소리로 중공을 '공비'라고 정의하다

[대륙 투고] 한번은 어떤 언니와 함께 밖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리던 중에 저녁이 되었다. 시간을 보니 막차 시간이 아직 15분 남아있어서 한번 더 산책을 하고 싶었다. 그때 옆에서 차를 기다리던 남자가 친절하게 말했다. "가지 마세요. 117번 차는 정확하지 않아서 곧 올지도 몰라요. 두 여사님이 차를 놓치면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보니 그는 50세 가량으로 보였는데, 체구가 건강하고 얼굴이 온화한 데다 말도 선하게 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하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말했다.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는 원래 파출소 경찰이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 평안하시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축원할게요!" 나는 그에게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 20년 동안 약골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어 감기에도 걸린 적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또 매사에 '진, 선, 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훌가분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연달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또 그에게 중공이 나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 하늘이 그를 멸하게 됐으니 '3퇴'를 해야만 평안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하니 그는 탈당에 동의했다.

나중에 우리는 함께 차에 탔는데, 그는 '3퇴'를 하고나서 우리에게 중공 토비가 세력을 키울 때의 어두운 역사를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누님, 허룽(贺龙)이 왜 고향에 못 갔는지 아세요?" 나는 모른다고 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가 식칼을 들고 혁명을 벌이면서 고향의 많은 사람들, 특히 돈 있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히 고향에 가지 못했는데, 바로 고향 사람들이 복수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내가 말참견을 했다. "너무나 도리에 어

긋났네요. 사람에게 돈이 있는 건 덕을 쌓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가 말했다. "공비예요, 공비!" 그 현직 경찰은 차에서 큰소리로 "공비, 공비"라고 떠들었고, 차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들었다.

교통경찰, "저한테 (파룬궁) 호신부 몇 개를 더 주세요."

[대륙 투고] 2018년 10월, 날씨는 폭염이었다. 한 젊은 교통경찰이 오고가는 차량과 행인들을 지휘하다가 멀리 보이는 노인을 향해 큰소리로 외쳤다. "어르신 잠깐만요." 그는 고함을 지르며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안 왔어요? 제가 여기서 4, 5일을 기다렸잖아요." 노인이 물었다. "나를 왜 기다려요?" 교통경찰이 다급하게 말했다. "저한테 (파룬궁) 호신부를 몇 개 더 주세요." 노인이 말했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받아서 뭘 하게요?" 교통경찰이 말했다.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필요하잖아요." 교통경찰은 노인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제가 동료들한테 (파룬궁) 호신부를 보여줬더니 동료들도 아주 좋아하면서 정말 진귀하다고 했어요. 정말 몇 개를 더 얻고 싶은데, 괜찮죠?"

노인이 말했다. "그럼요! 파룬궁이 바로 사람을 구하는 것이니까 몇 개든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호신부를 받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3퇴'를 하고 진심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轮大法好), 쩐싼린 하오(真善忍好)'를 믿어야 해요..." 교통경찰이 말했다. "좋아요. 저한테 주신 호신부만큼 '3퇴' 명단을 드릴게요."

교통경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좋아요. 우리한테 말을 안 했더라면 우리가 못 들었을 테고, 모두 거짓말에 속았을 거예요. 여러분 파룬궁(체자)은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노인은 젊은 교통경찰에게 파룬궁 사부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니 '파룬따파 하오, 쩐싼린 하오'를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교통경찰은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고 연달아 고맙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목소리,

[명혜망] 2019년 7월 20일, 파룬궁 수련생 반박해 20주년을 맞아 미국 국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회장 짐 맥고번 의원과 공동 회장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파룬궁 박해 중지와 수감된 파룬궁 수련생 석방을 중공에 촉구하고, 파룬궁 박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허용하고 중공에 요구했다.

성명서는 이렇게 지적했다.“과거 20년 동안 중국의 파룬궁 수련생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인권 학대를 겪었다.” “이런 슬픈 기념일에 중공은 마땅히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고, 과거 20년 간 파룬궁에 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

최근 파룬궁 수련생은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악인(惡人) 명단을 미국 국무부에 제출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부 관리는 명단을 접수했고, 언급된 모든 사람을 합동 심리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지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중국인이 인권박해로 인해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며, 모두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관리는 또 인권박해자의 배우자와 자녀 역시 징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8개 국가가 미국과 유사하게 인권 박해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마그니크리 키플인’ 제정을 이미 완료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파룬궁 수련생은 중국대륙,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한국, 홍콩 등 2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국제 헤이그 법원 등에 장쩌민을 고소했다. 2015년 5월까지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 20만 명이 실명으로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을 고소했고, 303만 명이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보내는 장쩌민 고발 서명에 동참했다.



퇴직 관리: “대학생 같은 젊은이는 중공을 극도로 증오한다”

[대륙 투고] 어느 날 오전, 내가 한 친구의 집에 갔는데, 그는 퇴직한 청급 간부이고, 이미 ‘3퇴’를 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아주 기뻐하며 몇 마디 인사를 하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 사회가 둠시 혼란스럽고, 양극으로 갈라지고,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한데다, 중공이 하는 모든 짓을 이미 대륙 민중이 깨뚫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억지 사설을 믿지 않아. 대학에서 대학생한테 한마디를 하면 되받아 ‘당신들은 당과 인민 보살피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즉시 큰소리로 교수한테 질의를 하지. 무엇이 당과 인민을 잘 보필하는 것이냐며, 그야말로 허튼소리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내가 어려서부터 를 때까지 당과 인민은 나한테 공부할 돈을 한 푼도 안 줬고, 개학할 때마다 학비가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학교에 못 들어오게 했어. 공산당은 사기꾼이고 강도야. 지금 관리라는 사람들이 모두 중공 당원이지만,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이익만 챙기지. 자네도 알다시피 앞서 호랑이를 잡을 때 탑관들한테서 모두 천 위안, 억 위안 이상이 나왔는데, 모두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고, 피땀이 밴 그런 돈을 중공 관리가 교묘하게 횡령한 거야. 공산당은 우리한테 좋은 건 조금도 주지 않고 오직 재난만 줬지. 우리가 공산당을 포기해야만 진정한 광명이 있어. 학생들이 말하는 게 모두 정말이라 교수는 말문이 막혀서 더는 공산당이 좋다는 말을 못하지.”

그는 또 말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기업의 채용에 두 번이나 참가를 했는데, 모집요강은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다고 했어. 수많은 대학생이 정말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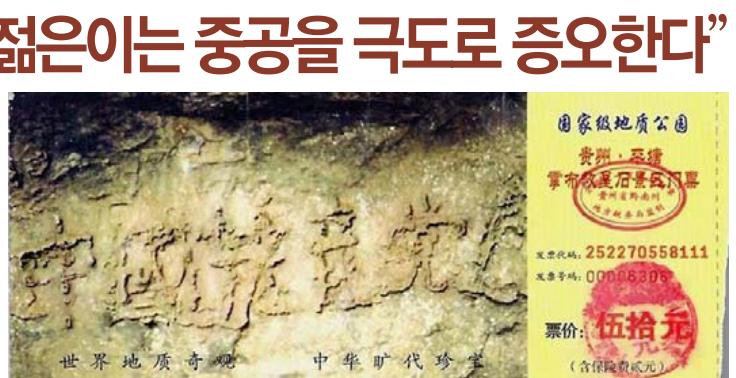
“파룬궁 박해 중지”



2019년 7월 1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파룬궁 수련생 장위화(張玉華, 사진에서 트럼프와 악수하는 사람)를 포함한 신앙 박해 피해자 27명을 접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여러분이 받은 고통은 대부분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영원히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중국문제 전문가 헝허(橫河)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가장 강권적인 중공이 건국 이후 무수한 중국인을 살해했지만, 파룬궁 박해에는 철저히 실패해 자신을 사면초가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중국 속담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면 반드시 스스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중공이 내우외환, 사면초가에 빠지고 하늘의 그물이 땅을 뒤덮었으니 그가 반드시 해체되어 멸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고 믿었고, 여러 난관을 거쳐 20명이 선발됐지만 10명만 채용이 되는데, 앞의 3명은 떨어지고 뒤의 3명이 채용됐어. 이유를 들어보니 앞의 3명은 집안이 가난했고, 뒤 3명의 집안은 권력과 돈이 있었어. 이 일은 학생들 속에서 크게 논란거리가 됐고, 학생들이 중공 사당의 주악한 본질을 완전히 알게 됐지.”

그는 말했다. “나중에 아들은 신문에서 한 외국 기업의 채용 공고를 봤고,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면접 등을 거쳐 아주 빨리 외국 기업에 채용됐어. 외국 기업은 돈과 뇌물을 바치거나, 관계를 이용해 뒷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정하게 능력을 따졌다.”

외국 기업과 중공 국영기업은 그야말로 천양지차로,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일목요연하지 않은가? 젊은이에게 공산당의 어디가 좋은지를 물으면 좋은 점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중공은 중국인에게 재난의 근원이며, 공산당이 없어져야만 인민에게 행복이 있다.